

## 李敷河 論 구성을 위한 試論

김 미 영\*

1. 여는 말: 이양하 論 구성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
2. 20대 일본 유학시절: 월터 페이터와 I.A.리처즈의 영미문예론 소개와 번역
3. 30~40대 초반 연희전문 재직시절: 영문학 관련 평론 활동과 수필 창작
4. 40대 초중반~사망까지 서울대 재직시절: 영어교재와 영어사전 편찬 및 계몽적 수필 쓰기
5. 닫는 말: 이양하의 세계, 혹은 학문(Sciences)과 창작(Poetries)의 이중주

### <국문초록>

이 글은 이양하 論(論)의 기초 작업으로 그동안 그의 수필 연구들이 간과 해온 그의 영문학 논문과 평론, 번역수필, 그가 편찬한 영어교과서와 사전 류 등을 일별한 것이다. 특히 그의 삶을 일본 유학기, 연희전문 재직기, 서울대 재직기로 삼분하여, 시기별 성취 및 특징들을 살폈다. 일본 유학기 20대의 그는 월터 페이터와 리처즈의 문예론을 번역·소개하면서 심미적 미의식과 윤리의식의 중요성, 시적 지향성과 시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30~40대 초반 연희전문 교수시절 그는 제임스 조이스와 워즈워드 등의 영문학 관련 짧은 평문들을 쓰면서 수필창작에 주력하여 1947년 『이양하 수필집』을 냈다. 이 무렵에 그가 특히 고독했고 염세적이었음은 「신록예찬」에 잘 드러나 있다. 1945년 서울대로 옮긴 후 사망할 때까지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는 영어교과서와 문법서,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을 편찬했다. 그는 전문가로서 견인주의적 성실성으로 이 일들에 임했다. 이 무렵 쓴 수

---

\*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peace6539@hongik.ac.kr)

필들은 『나무』(1964)에 실렸는데, 「무궁화」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계몽적 성격을 띤다. 「나무」가 예외적인데, 이 작품에서 그는 윤리의식을 중시한 페이터와 리처즈로부터 받은 영향을 기초로, 삶을 통해 체득한 가치를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였다. 그의 생애는, 그가 번역한 리처즈 책의 제목처럼, 학문(Science)이란 전공영역과 시(Poetry)라는 창작세계의 이중주였다. 그는 전공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후 여기(餘技)인 수필창작을 통해 심미적이고 시적 상태에 대한 갈망을 풀어냈다. 그의 대표작 「나무」에 제시된 새로운 모델은 전문인의 자리에서 직분에 충실한 후,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을 자유로서의 「고독」을 희구하는, 현대적 식자층의 탄생을 예고하는 하나의 징후로 볼 수 있다.

\* 주요어: 이양하, 수필, 월터 페이터, I.A.리처즈, 모델

## 1. 여는 말: 이양하 論 구성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

수필가 이양하(李敷河; 1904~1963)는 30여 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한 영어영문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2권의 수필집, 『이양하 수필집』(을유문화사, 1947)과 『나무』(민중서관, 1964)를 냈고, 대표작 「신록예찬」, 「페이터의 산문」, 「나무」는 오랜 동안 교과서에 실렸다. 때문에 지금껏 그에 관한 논의는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윤식만이 그가 일어로 발표한 「페이터와 인본주의」라는 논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거기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sup>1)</sup> 이 글은 이양하에 관한 논의는 수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는 수필뿐 아니라, 영문학 관련 평론이나 논문, 영어학 관련 성과물들을 다수 냈기에, 그의 수필세계조차도 다른 영역에서의 성취들과 함께 논구될 때, 온전히 그 의미가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1) 김윤식, 「이양하 론」, 『(속)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81, 263~288쪽; 이양하, 김윤식 역, 「이양하의 「페이터와 인본주의」(『영문학연구』 13권 2호, 1933.4, 187~191쪽)」, 『현대문학』 28권 1호, 1982.1, 283~295쪽.

지금껏 이양하 수필에 대한 평가는 극찬과 혹평을 오갔다. 이는 연구자들이 그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않고 특정 수필에 한하여 논의한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수필에는 사유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산문양식인 수필의 본질을 몰각한 듯 수필에 시적 세계를 담아내고 있고, 문장조차도 의도적으로 꾸민 듯한 인상이 짙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어놓았다.<sup>2)</sup> 다른 일각에서는 그의 수필들은 삶에 대한 사색적 성찰이 돋보이는 명문들로, 찰스 램(Charles Lamb;1775~1834)이나 월터 페이터(Walter Horatio Pater;1839~1894)를 능가하는 한국의 대표 명수필들이라 극찬하였다.<sup>3)</sup> 이양하에 대해서 여러 글을 쓴 김윤식조차도 연구 초반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다가, 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로 돌아서고 있다.<sup>4)</sup> 이런 사실들은 얇은 수필집 2권에 총 62편의 수필을 남겼을 뿐인 이양하의 문학세계가 기실 일면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전체적인 면모 파악이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 글은 온전한 이양하 론(論) 구성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그가 이룬 업적들을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일별해 본 것이다. 그의 두 번째 수필집 『나무』(1964)의 서문을 쓴 부인 장영숙은 그의 수필세계를 일제하 연희전문시절, 체미기간 전후, 서울대 재임기간으로 3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sup>5)</sup> 이 글은 수필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성과까지를 포함하기에, 그가 일본에서 유학한 기간, 연희전문에 재직할 시기, 서울대에 재직한 기간으로 삼분해서 그의 삶을 살피려 한다. 그는 20대 시절, 일본에 유학하면서 영미문예론을 번역하거나 소개하는 일에 몰두했다. 또 30대와 40대 초반에는 연희전문에 근무하면서 교육과 수필창작, 소소한 평론집필에 힘을 썼다. 해방되던 1945년에 서울대로 자리를 옮긴 그는 40대

- 
- 2) 김윤식, 「고독과 예고이즘」,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336~344쪽.  
정부래, 「이양하 수필 연구」, 『청어람문학』 4호, 청람어문교육학회, 1991, 414~465쪽.
- 3) 임중빈, 「이양하 론」, 『신록예찬』, 범우사, 1976, 7~19쪽.  
김우창, 「이양하의 수필세계」, 『수필공원』, 한국수필문학진흥회, 1984, 116~117쪽.
- 4) 김윤식의 이양하에 대한 평가는 그가 이양하의 일어논문 「페이터와 인본주의」를 번역하여 1982년 1월 『현대문학』에 실은 이후에 쓴 글들에서 현격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5) 장영숙, 「머리말」, 이양하, 『이양하 수필선』, 을유문화사, 1994, 4쪽.

중반부터 사망할 때까지 영어 교과서나 문법서를 편찬하고, 영한사전과 한영사전 등 사전류를 만들면서, 수필가로서는 한국사회나 후학들에게 주는 계몽적 산문들을 주로 썼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그에 관한 연구들에서 덜 조명된 영문학 관련 논문이나 평론들, 그가 만든 영어 교재나 사전류들, 덜 논의된 수필들을 중점 고찰하려 한다. 이들에 관한 논의는 이 글이 첫 시도일 터인데, 이로써 이양하의 세계가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 20대 일본 유학시절:

### 월터 페이터와 I.A.리처즈의 영미문예론 소개와 번역

이양하는 1904년 평안도의 다소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1923년 평양고보를 졸업한 그는 유학에 반대하는 부친으로 인해 철도국에 근무하던 백씨(젓어머니의 아들)를 졸라 학비를 얻어 1927년에 도일하였다. 관동대지진을 견디고 경도에 소재한 제삼고보를 졸업한 그는 동경제대 영문과에 입학하여 1931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sup>6)</sup> 1932년에는 경도제대 영문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34년에 귀국할 때까지 그는 경도 제삼고보 도서관 사서로 일했다. 이 무렵에 그가 리처즈(Ivor Armstrong Richards: 1893~1979)의 『과학과 시』(*Science and Poetry*, 1926)를 일역해서 『詩と科學』(겐큐사硏究社)이란 이름으로 1932년에 출간했고, 1933년 1월에는 『조선일보』에 「리처즈의 문예가치론」을 연재하여 리처즈의 이론을 조선에 소개하였다. 또 같은 해에 논문 「월터 페이터와 인본주의」를 일본 영문학 학술지인 『영문학연구』(1933.4.)에 실어 일본 영문학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가 연회전문에 강의를 얻어 귀국한 것은 1934년 만 30세의 일로, 즉 그는 10대 후반과 20대 전부를 온전히 일본유학으로 보낸 셈이었다. 이 시기에 그는 남다른 영어실력과 문학에의 열정으로 리처즈와 페이터의 문예

6) 최정수, 「이순의 고백」, 정병조 편, 『이양하 교수 추념문집』, 민중서관, 1964, 210~211쪽. (이하 이 책은 『추념문집』이라 줄여 표기함.)

론(혹은 시론)을 번역하거나 소개하는 데 몰두했는데, 결국 이는 그의 문예 관과 수필창작뿐 아니라 삶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페이터와 리처즈 중, 이양하의 문학적 출발점이 된 인물은 페이터라 할 수 있다. 이는 “내게 문학을 가르친 사람은 실지에 있어 이 ‘페이타’라는 사람”이라는 그의 진술<sup>7)</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고시절 그의 관심사는 오직 ‘영어’였는데, 당시 그는 영어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3개 반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로 편성된 갑(甲)반 소속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월터 페이터의 『문예부흥』(*The Renaissance*, 1873)이란 책을 접한 그는 페이터에 빠져 들어 영문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렇듯 페이터는 영어에 뜻을 두고 있던 그로 하여금 문학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만든 인물이었다. 월터 페이터의 책 중, 당시 이양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았던 것은 『쾌락주의자 마리우스』(*Marius the Epicurean*, 1885)였다. 이 책은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Antoninus: A.D. 121~180) 황제 시절을 배경으로 허구적 인물인 청년 ‘마리우스’의 정신적 편력을 다룬 성장소설이다. 이양하는 1930년에 동경제대 영문과 졸업논문으로 월터 페이터의 『쾌락주의자 마리우스』를 주제로 하여 “The Inner life of Marius the Epicurean, with Reference to Walter Pater’s view of life”를 썼다. 또 교토제대 대학원에 재학하던 1931년 4월에는 『영문학연구』(제11권 2호)에 「批評紹介: 工藤好美譯, 「ウォオルター・ペイター短篇集」을 실었다. 이 글이 그의 일본 영문학계 데뷔작이다. 당시 일본의 『영문학연구』라는 학술지는 전국 제국대학에 회원을 보유한 학회에서 발행하던 것으로, 발간의 중심은 동경제대였다. 여기에 논문을 게재한다는 것은 곧 주류 영문학계에 발을 들여놓는 일로 간주될 만큼 이 학술지의 권위는 대단했다.

이양하가 처음 발표한 글은 1930년 1월에 출간된 쿠도 요시미(工藤好美)의 페이터 산문집 일역본에 대한 서평이었다. “최신출판영문학서목(最新出版英文學書目)”이란 코너에 실린 이 글에서 그는 1926년에 출간된 쿠도의

7) 이양하, 「외국문학전공의 변(10)-페이타의 문예부흥」, 『동아일보』, 1939년 11월 18일자, 제4면.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의 번역본과 월터 페이터의 원본까지를 함께 참조하면서, 새로 출간된 쿠도의 일역본 『페이터의 산문집』에 나타난 페이터의 사색과 조용하면서도 호흡이 긴 문체의 매력을 차분한 어조로 설명했다. 이양하는 페이터가 초기엔 색과 모양 등의 physical beauty(형상적 미)를 중시했으나, 점차 관심이 spiritual beauty(정신적인 미)로 이동해 갔고, 말년에는 discipline(규율)와 restraint(절제)에서 오는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고 설명했다. 짧은 서평이었으나 이 글에서 그는 페이터의 *Marius the Epicurean*, *Plato and Platonism* 뿐 아니라, 후기 단편집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페이터가 “청징(淸澄)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갖고”, “흥분(excitement)과 불안(disturbance)으로부터 자유로운 휴식(repose)과 평정(tranquillity)을 추구해 마지않았다.”고 평가했다.<sup>8)</sup> 이런 사실들은 이양하가 1931년에 발표한 첫 글에서 이미 월터 페이터의 문학과 사상에 관해 영국 본토의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9)</sup>

이양하가 일본의 『영문학연구』에 발표한 두 번째 글은 1933년에 모리 로쿠로(森六郎)의 도움으로 게재 기회를 얻은 「페이터와 인본주의」(『영문학연구』 13권 2호)이다. 이 글은 20대 말 이양하의 높은 학문적 성취를 보여주는 논문으로, 김윤식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어 『현대문학』(1982. 1.) 「자료소개」란에 실렸다.<sup>10)</sup> 이 글에서 이양하는 심미주의자 페이터와 인본주의자 베비트의 사상을 비교한 끝에 페이터의 손을 들어 준다. 그는 페이터는 미의 관조와 향유를 중시한 심미주의자인데 비해, 베비트는 의무수행에 관계된 인간의 의지를 중시한 인본주의자로 인식했고, 페이터는 인간의 정서적 만족을, 베비트는 충동과 욕망의 절제를 통한 절도와 중용의 실천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sup>11)</sup> 베비트는 페이터를 생활의 기준이 따로 없는 ‘정서적 자연주의

8) 김진희, 「일본 『영문학연구』에 실린 이양하의 첫 비평: 李駿河, 「批評紹介: 工藤好美譯, 『ウォオルター・ペイター短篇集』, 『英文學研究』 제11권 2호, 1931.4.」, 『계간 서정시학』 27권 3호, 서정시학, 2017.8, 189~190쪽.

9) 위의 논문, 190쪽.

10) 김윤식, 「문학사의 라이벌5, 이양하와 김기림」, 『문학의 문학』, 2008년 가을호, 동화출판사, 2008.9.5, 328~376쪽.

11) 이양하, 앞의 논문, 288쪽.

자'로 보아, 이런 자들에게는 충동과 욕망을 통제할 '높은 의지'와 '내적 억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sup>12)</sup> 반면, 페이터는 감각이나 정서를 이성과 동등한 것으로 보았고, 감각과 정서를 세련되게 도야함으로써 그것으로 지적인 것, 신적인 것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양하는 베비트의 '의지'와 '억제'보다, 페이터의 예술적 '고행'에 더 깊이 공감하였다.<sup>13)</sup>

어쨌든, 1930~1933년경 이양하의 관심은 온통 윌터 페이터에 집중되어 있었다. 여기엔 당시 일본 영문학계가 낭만주의에 지배되고 있었던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에 등장하는 마리우스의 상황이 당시 이양하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어서, 특히 그가 거기에 몰입해간 것으로 보인다. 「페이터와 인본주의」에서 이양하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듯이,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에서 마리우스는 어려서 모친상을 당했고, 그로 인해 허무주의적 세계관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러던 중, 숨 막히는 고향을 떠나 '피사'라는 낯선 도시로 유학을 가서 학업에 정진하게 되자, 마리우스는 지식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이제 마리우스에게 있어 지적 경쟁에서 획득한 성취는 허무를 극복하는 유일한 동력이 되었다. 유학지에서 지적 쾌락의 추구에 나선 마리우스의 모습은 어린 시절 모친상을 당한 후 일본에서 외롭게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던 청년 이양하의 처지와 여러 면에서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학업을 마치고 로마에서 작은 벼슬을 얻게 된 마리우스는 어느 날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행차를 목격하게 되고, 황제의 강연도 듣게 된다. 아끼던 벗이 죽고, 또 지적 쾌락의 추구에 지친 마리우스가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우연히 접하게 된 황제의 연설은 그의 삶에 변화의 계기가 된다. 황제의 연설은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The Meditations*)을 축약한 것이었다.<sup>14)</sup> 기원전 2세기 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명상록』은 운명에 자신을 맡겨버리지 않고 외로움과 슬픔을 견디며 겸손하고 소박함으로 자신을 높이는 금욕주의자의 삶과 사유를 담은 책이다.<sup>15)</sup>

12) 위의 논문, 289쪽.

13) 위의 논문, 294~295쪽.

14) W. H. Pater, *The Essays of Pater*, 이성호 역, 『페이터의 산문』, 범우사, 1982, 95쪽.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에서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은 곧 월터 페이터의 사상이었고, 이는 곧 마리우스의 성숙을 추동하는 힘이였다. 이양하 역시 이를 자기 삶의 지침이자 문학적 전언으로 대표수필 「신록예찬」과 「나무」에 담아내었다. 이상의 사실들에서 이양하가 월터 페이터로부터 받은 영향은 감각과 심미적 의식의 세련을 통한 지적 도야와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인 '견인주의'라는 일종의 모럴임을 알 수 있다.

이양하가 일본과 조선에 소개한 또 한명의 영미 문예이론가는 I.A. 리처즈이다. 그는 리처즈의 『시와 과학』을 일어와 조선어로 번역했고, 이를 조선에 소개하는 「리처즈의 문예가치론」도 썼다. 특히 그가 20대에 일역한 『시와 과학』은 그가 청년기의 감상에서 벗어나 절제를 실천하며 윤리감각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양하는 리처즈의 문예론이 가치론적임을 간파하였는데, 이는 그가 쓴 「리처즈의 문예가치론」이란 글의 제목에 잘 드러나 있다. 리처즈는 『시와 과학』에서 시 비평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를 도입하자 주장하는 한편, 윤리적인 인간에 대한 지론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즉, 리처즈는 그에게 있어 페이터나 아우렐리우스처럼, 미학적 인식뿐 아니라, 삶의 윤리적 지침을 제시해 주는 스승이기도 하였다.

리처즈가 이양하에게 미친 영향은 특히 시와 언어에 관한 인식에서 뚜렷한데, 이는 『시와 과학』 때문이었다. 이양하는 이를 번역했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 오랜 동안 강의의 교재와 주제로 삼았다.<sup>16)</sup> 리처즈는 1926년 런던에서 *Science and Poetry*라는 제목의 시론서를 출간했고, 1935년 개정판에서 제목을 *Poetries and Sciences*로 바꾸었다.<sup>17)</sup> 일본에서 이 책은 영국에서 초판이 출간된 직후에 『科学と詩』란 제목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양하는 초판이 출간된 지 6년 만에 이를 일역하여 『詩と科學』이란 제목으로 출간하였다. 그의 일역본 서문은 마침 북경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토에 잠시 들린 리처즈가 직접 썼다.<sup>18)</sup> 이 책의 출간은 영문학자로서 이양하의 최대 공

15) Marcus Aurelius, *The Meditations of Marcus Aurelius Antoninus*, 노혜숙 역, 『새로 읽는 아우렐리우스 명상록-황제의 철학』, 세종서적, 2004, 1권 17, 48쪽.

16) 전형국, 「연희시절의 은사」, 『추념문집』, 193쪽.

17) I.A.Richards, *Poetries and Scienc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pp.10~11.



적으로 꼽힌다. 왜냐하면 그가 1937년에 일본에서 낸 『랜더의 평전』은 일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었기 때문이다.<sup>19)</sup> 그는 또 1947년에는 을유문화사에서 조선어본 『詩와 科學』을 반양장 64면으로 출간하였다.<sup>20)</sup>

리처즈의 『시와 과학』은 7장 구성의 책으로, I~II장에서는 우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은 이성(과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본성을 충실히 탐구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sup>21)</sup> 이어 과학과 시가 공존하는 시대에 과학의 언어는 하나의 의미만 선택하도록 고안된데 반해, 시의 언어는 말하는 방식, 음조, 억양, 리듬 등을 통해 시인과 독자를 무수한 가능성 속에 놓이도록 하는 점에서 다르다는 설명이 이어진다.<sup>22)</sup> III~IV장에는 시와 시인의 역할이 설명되고 있다. 좋은 시는 시인의 경험을 그의 생애의 한 부분으로 만들고,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자신의 정황 속 한 요소로 수용하게 만든다.<sup>23)</sup> 시인은 마음의 뿌리에서 솟아나온 최고 경험을 체계화한 좋은 시를 써서 독자들을 거기로 이끄는데, 이 일은 시인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시어의 배열 속에 리듬이나 형용사의 선택 등에서 우러난 적당성의 느낌, 필연성의 느낌이 동반될 때 가능해진다. 시인의 언어 선택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서, 좋은 시는 결코 모방될 수 없다는 것이 리처즈의 지론이다.<sup>24)</sup> V~VI장에서는 실제 인간에게는 지식보다 감정, 태도, 행동이 더 근원적이며, 심지어 이들은 지식의 원천이기도 해서, 시는 과학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특히 마술적 세계관에서 과학적 세계관으로 전이되고 있는 현대에는 신이나 영혼과 관련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은 명증한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의사 진술’인 시의 언어라 주장한다.<sup>25)</sup> VII장에서는 한 민족에게 시(詩)는 그 민족의 의식의 정점이며 민족의 최대

18) 이양하, 「譯者の言葉」, 『詩と科學』, 研究社, 1932, 김진희, 앞의 논문, 193쪽에서 재인용.

19) 위의 논문, 185쪽.

20) 정진숙, 『을유문화사 50년사』, 을유문화사, 1997, 409쪽.

21) I. A. Richards, *Poetries and Sciences*, 이국자 역, 『시와 과학』, 이삭, 1983, 15~19쪽.

22) 위의 책, 32~34쪽.

23) I. A. Richards, 앞의 책, 41~42쪽과 145~146쪽.

24) 위의 책, 44~46쪽.

25) 위의 책, 54~60쪽.

역량과 가장 섬세한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민족의 말에서 생명을 얻고, 다시 그 생명을 그 민족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는 엘리엇의 말로 결론을 삼고 있다.<sup>26)</sup>

이상에서 약술한 『시와 과학』의 내용에서 가치론적 측면을 강조한 글이 이양하의 「리처즈의 문예가치론」(『조선일보』, 1933.1.)이다. 이 글의 제목은 이양하가 리처즈의 이론을 ‘시론+가치론’으로 이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이양하의 리처즈 이해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리처즈와는 거리가 있다. 리처즈는 문학작품을 자족적인 것으로 보아 작품의 내적 구조 분석이나 언어, 상징 등의 문제에 집중한 뉴 크리티시즘의 기초를 닦은 영국 문예이론가로 알려져 왔다. 그렇다면 이양하는 어떻게 리처즈의 시론을 가치론적으로 이해한 것일까? 열쇠는 『시와 과학』에 있다. 초기 저작인 이 책에서 리처즈는 먼저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구분하였다. 그에게 좋은 경험은 “생기에 찬 경험 혹은 생기에 찬 경험을 초래하는 경험”이고, 나쁜 경험은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갈등과 좌절을 초래하는 경험”인데,<sup>27)</sup> 시(예술)란 “현실에서 달성된 경험의 최고의 체계화”이며,<sup>28)</sup> 시인의 임무는 “질서와 일관성, 따라서 자유를 경험의 본체에 주는 것”인바, 이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29)</sup> 다시 말해 리처즈는 인간의 건강한 삶은 ‘충동’의 올바른 조직으로 가능하며, 거기엔 ‘가치’가 기준으로 개입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양하는 바로 이 점을 간파하여 리처즈의 이론을 ‘문예가치론’이라 명명한 것이다.

또한 「리처즈의 문예가치론」에서 이양하는 리처즈가 일반 경험과 다른 기준을 예술적 경험 혹은 미적 경험에 적용해온 기존의 방식에 반기를 들었음에 주목하였다. 인간을 “충동의 집합체요, 조직체”로 이해한 리처즈는 “최대 다수의 충동의 만족과 최대 소수의 충동의 희생”을 가능케 하는 것을 가장 선(善)하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여겨서<sup>30)</sup> 밴덤의 공리설과 크게 다르

26) 위의 책, 78쪽.

27) 위의 책, 39쪽.

28) 위의 책, 41쪽.

29) 위의 책, 53쪽.

지 않은 입장이었다. 이양하는 리처즈가 “가치를 모든 충동의 상호 타협과 상호 조화로 된 마음의 평형상태”, 즉 ‘쾌(快)로 환원하고 있지만,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유열(愉悅)은 충동의 완전한 조직화의 부산물일 뿐, 결코 예술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에, 리처즈를 쾌락주의자(hedonist)가 아닌 유티주의자(aesthete)로 칭하였다.<sup>31)</sup> 리처즈에 따르면, 예술과 도덕과 과학의 가치는 동일한 척도로 계량될 수 있고, 예술적 경험은 일반 경험과 동일한 구조에 지배를 받기에 예술도 객관적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sup>32)</sup> 그러나 예술의 특이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는 예술에서는 내념적(內念的) 또는 내합적(內含的) 행동이 표백적(表白的) 행동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과학이나 도덕과 달리 예술에서 전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언어와 운율과 억양이, 음악에서는 음색과 음의 고저가, 회화에서는 색채와 형의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이양하는 리처즈를 빌어 설명하였다.<sup>33)</sup>

이양하는 「시와 가치」라는 글도 썼다. 이 글은 『이양하 교수 추념문집』 3부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리처즈의 『시와 과학』의 3장을 번역한 것이다. 이양하가 『시와 과학』에서 특별히 이 부분만을 떼어 독립된 글로 발표한 것은 이 장이 리처즈의 시론이 모럴론에 연결됨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와 가치」에서 리처즈는 개인 간 충동의 부딪침인 갈등은 항상 존재하지만, 충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한 개인이 자신의 생을 활성화시키는 길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훌륭한 삶이란 자신의 충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표출하면서도 그것이 타자의 그것과 마찰을 빚지 않는 삶이다. 즉, 개인 간 상호 충돌과 간섭이 최대한 배제된 삶이다. 시는 누군가가 성취한 그런 선한 경험의 기록이고, 선한 경험은 다른 누군가를 또 그런 상태로 이끄는 경험이기도 하다. 즉, 좋은 시는 충동적 인간을 도덕적으로 이끌어 윤리

30) 이양하, 「리처즈의 문예가치론」, 1933, 이양하, 『이양하 수필선』, 을유문화사, 1994, 131~132쪽.

31) W. H. Pater, 앞의 책, 7~8쪽.

32) 위의 글, 142쪽.

33) 위의 글, 146쪽.

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고양한다는 것이다.<sup>34)</sup> 바로 이런 대목에서 리처즈의 시론은 가치론 혹은 윤리의 문제에 가 닿고 있다.

이양하가 자신의 비평적 기준으로 꼽은 것은 리처즈의 심리학적 가치론, 베비트의 신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비평 등 세 가지이며, 이들은 단순한 문예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관이자 세계관이라 말하였다.<sup>35)</sup> 하지만 실제 그의 미학적 거점은 페이터와 리처즈의 문예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시와 과학』을 번역하고 귀국한 1930년대 중반 조선 문단에는 외국문학을 전공한 신예 비평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통적 보수주의에도, 편협한 계급주의에도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면서 자신들만의 국제적인 감각을 살려 새로운 문학을 추구하였다.<sup>36)</sup> 때문에 이양하가 그 무렵 『조선 일보』를 통해 「리처즈의 문예가치론」을 소개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뒤를 이어 경성제대 영문학과 출신인 김기림도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되던 『학풍』이란 잡지에 「I.A. 리차아즈論:『詩의 科學』 設計의 一例」(제1권1호, 1948.9.)를 발표했다. 이렇듯 1930~40년대에 이양하를 필두로 영문학을 전공한 최재서, 김기림이 가세하면서 주지주의 문예론의 도입이 가속화되었고, 이로써 조선시단의 현대화가 앞당겨질 수 있었다.<sup>37)</sup>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십대에 준비 없이 치른 초혼에 실패한 뒤 일본 유학길에 올랐던 이양하는 한때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셸리(P.B.Shelley; 1792~1822)의 감상성 짙은 시에 깊이 침윤되기도 했으나,<sup>38)</sup> 끝내 결핍과 고독, 슬픔과 우울을 극복하고 영문학자의 길에 오름으로써 청년기의 감상을 극복할 수 있었다. 여기엔 월터 페이터와 리처즈의 문예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자는 그에게 심미적 세계관을 심어주었고, 절제와 윤

34) 이양하, 「시와 가치」, 『추념문집』, 113~115쪽.

35) 이양하, 「리처즈의 문예가치론」, 『이양하 미수록 수필선』, 중앙신서, 1978, 120~126쪽.

36) 오세영,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90, 100~113쪽.

37) 이양하가 최초로 조선에 도입한 리처즈의 문예론은 김기림의 『시의 이해』(1950), 최재서의 『문학원론』(1957), 송옥의 『시학평전』(1963) 등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순, 「이양하의 리처즈 시론 수용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호, 한국현대문학회, 1993.2, 236~252쪽.

38) 이양하, 「셸리의 소리」, 『이양하 수필집』, 을유문화사, 1947, 107~115쪽.

리감각의 중요성도 인식시켜 주었다. 교토제대 대학원 시절 이양하는 페이터와 플라톤(Plato; B.C.424~348)을 전공했는데,<sup>39)</sup> 월터 페이터는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플라톤은 이성의 발전에는 윤리적 동기가 바탕을 이룬다는 입장을 견지한 윤리주의 철학자였다. 이런 연유로 이양하는 대학원에서 플라톤과 페이터를 함께 전공하였고, 페이터나 리처즈의 유티주의적 미의식에 깊이 침윤되었어도 늘 한편에선 모럴문제를 의식하게 되었다. 「페이터와 인본주의」에서도 그는 제한과 억압에 의해 비로소 보다 경건하고 보다 가치 있는 생활이 얻어진다고 한 월터 페이터의 ‘고행’이란 개념의 실천을 강조하였다.<sup>40)</sup> 다시 말해 이양하에게 월터 페이터와 리처즈는 모두 ‘모럴’을 강조한 문예이론가로 수용되고 있다. 이로써 중년 이후에 그가 수필 「나무」에서 ‘견인주의’라는 모럴을 제시한 것은 20대에 그가 페이터와 리처즈를 수용할 당시에 이미 예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1)</sup>

### 3. 30~40대 초반 연희전문 재직시절: 영문학 관련 평론 활동과 수필 창작

이양하는 1934년부터 1945년까지 약 11년간 연희전문에 재직했는데, 이는 그의 나이 30~40대 초반의 일이다. 지인들은 당시에 그가 매우 고독하고 신산한 독신이었다고 술회한다.<sup>42)</sup> 당시에 그는 학생들이나 동료, 지인들과 어울려 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낭만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sup>43)</sup> 지인들은 그 무렵의 이양하에 관해 “소녀 같았던 감상”<sup>44)</sup> “일생 낭만에서

39) 이양하의 전공 지도교수는 石田憲次, 田中秀央이었다. 김윤식, 「이양하 론」, 『(속)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81, 265~268쪽.

40) 김윤식, 「이양하 론」, 277쪽.

41) 시 「이 세상에 해 있다고」에서 ‘모럴’에서만 세상이 서고 현실이 타개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데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이양하, 「이 세상에 해 있다고」, 『마음과 풍경』, 민중서관, 1962, 139~140쪽.

42) 고흥근, 「연희시절의 이양하 씨」, 『추념문집』, 217~220쪽.

43) 전형국, 「연희시절의 은사」, 위의 책, 193~194쪽.

44) 조풍연, 「이 선생과 나」, 위의 책, 222쪽.

사신 영원의 청춘”<sup>45)</sup> “낭만과 자유를, 그리고 고독을 물마시듯이 하는 그”<sup>46)</sup> “말 없는 분”<sup>47)</sup> “지성적이라기보다는 감각적”이고, “후각에 특히 민감한 사람” 등으로 기억하고 있다.<sup>48)</sup> 연희전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1937년에 사이토 다케시의 기획으로 일본에서 세계문인평전 시리즈를 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양하는 『랜더의 평전』(겐큐사)을 맡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sup>49)</sup> 평전에서 그는 랜더(Walter Savage Landor; 1775~1864)가 시(詩)에서는 워즈워드, 셸리, 바이런, 콜리지 등 동시대 영국 낭만파 시인들에게 뒤지지만, 산문에서는 월등하다는 평을 내놓았다.<sup>50)</sup> 그가 조선어로 발표한 「랜더의 바스時代」는 『랜더의 평전』의 제7장을 번역한 것으로, 『이양하 교수 추념 문집』의 3부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랜더가 아내와 자식들과 헤어진 후, 바스에 살면서 매일 오전에는 저술활동을, 오후에는 산책을, 저녁에는 독서를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한 것을 소개하였다. 이는 그가 랜더 식의 일과를 시인의 이상적인 일상생활로 생각한 때문으로 보인다.<sup>51)</sup>

연희전문 시절 그가 영문학과 관련해서 쓴 평문에는 「루소와 낭만주의」(1940), 「제임스 조이스」(『문장』 3권3집, 1941.3) 등의 짧은 글들이 있다. 후자는 1941년 2월 13일에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1882~1941)가 작고한 것을 계기로 조이스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소개한 글로, 『더블린 사람

45) 류령, 「시인으로서의李 선생」, 위의 책, 224쪽.

46) 장덕순, 「스승의 이모 저모」, 위의 책, 230쪽.

47) 김우창, 「이 선생님의 말씀」, 위의 책, 242쪽.

48) 고흥근, 앞의 글, 218쪽.

49) 정병조 편, 「연보」, 위의 책, 250쪽.

50) 김진희, 앞의 논문, 195~196쪽.

51) 이 밖에도 그는 「랜더의 바스時代」에서 랜더의 작품세계를 극시, 감상시, 서정시, 말년의 저작물로 나누어 설명하고, 말년에 랜더가 겪은 소송이야기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랜더는 잉글랜드 출신으로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했으나 급진사상과 과격한 행동 때문에 정학을 당하였고, 주변인들과 자주 다투었다.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 찰스 램, 찰스 디킨스, 로버트 브라우닝 등 낭만파 문인들과 친교를 나누었고, 소년시절부터 고전에 능했고 라틴어를 잘 해서 라틴어 작품들을 많이 썼으며 소설, 극시, 서정시도 남겼다. 그의 시는 낭만적인 제재를 고전적인 균형과 조화 속에 표현한 것들로 평가된다. 대표작에는 『가상대담집(假想對談集)』(1824~1853)이 있다.

들』(*Dubliners*, 1914),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1916), 『율리시즈』(*Ulysses*, 1922) 등을 쓴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조이스의 작품세계를 『율리시즈』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 것이다. 이양하는 이 글에서 ‘레오폴드 블룸’이라는 사내가 아침 여덟시부터 밤까지 지낸 평범한 하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담아낸 『율리시즈』는 기존의 서사물이 행위나 사건, 성격묘사를 통해 개성을 드러낸 것과 달리 인물의 내면 의식을 빠뜨리지 않고 묘사함으로써 성격화에 성공한 작품이라 설명하면서, 조이스의 풍부한 어휘력과 1인칭과 3인칭의 시점을 교차하는 기법을 이 작품의 특징으로 짚고 있다.<sup>52)</sup> 이는 이양하가 문학에서 언어와 형식 문제에 관심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대학에서 영시 강의를 맡았던 이양하는 산문 보다는 시에 관한 글을 많이 썼다. 제자 송옥이 그를 “시와 연구를 사랑했던 선생님”, “육십 평생을 연구와 詩心으로 늙으신 老大家”라 서술한 것이나,<sup>53)</sup> 『이양하 교수 추념문집』 2부에 수록된 그의 글 “William Wordsworth”, “Christina Rossetti”, “T.S.Eliot”, “Ezra Pound”, “Edith Sitwell”, “E.E.Cummings”의 면면을 보아도 이런 사실은 분명해진다. 김윤식은 이런 이양하에 대해 산문양식인 수필을 ‘시적’으로 변용했다면서 그가 수필의 본질을 몰각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sup>54)</sup> 그런데 “William Wordsworth”라는 글은 이양하가 시와 산문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양하는 이 글에서 수선화가 피어 있는 강변가를 산책하며 워즈워드가 쓴 시와 워즈워드의 누이가 쓴 산문(일기)을 비교하면서 시와 산문의 차이를 설명한다. “안전(眼前)의 풍경을 본대로 묘사하는” 데에서 시도 산문도 탄생하지만, 시는 특별히 그것과 동시에 “그 풍경을 보는 데서 오는 마음의 울동을 통일하고” 또 그것을 “통일 있는 리듬으로 표현한 데”에서 탄생한다는 것이다.<sup>55)</sup> 산문에도 리듬은 있지만, 산문의 리듬은 묘사의 주안(主眼)은 아닌 반면, 시는 “해조(諧調) 있는 리듬”을

52) 이양하, 「제임즈 조이스」, 『문장』 3권3집, 1941.3, 138~143쪽.

53) 송옥, 「홀로 선 나무」, 『추념문집』, 200쪽.

54) 김윤식, 「고독과 예고이즘」,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336~344쪽.

55) 이양하, “William Wordsworth”, 『추념문집』, 72쪽.

가져 “시인의 경험에 그의 누이동생의 산문에서 볼 수 없는 통일을 주는 동시에 특수하고 개성적인 음조와 뉴(뉘)앙스를 주고 있”<sup>56)</sup>다고 그는 설명한다. 또 “Christina Rossetti”에서는 “시인은 주로 이미지를 갖고 사람의 경험을 말하고 있으나, 리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울동을 표현”하기도 한 다면서<sup>57)</sup> 시에서 리듬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지적한다. “T.S. Eliot”에서는 “시인은 그의 말 하고자 하는 바를 추상하여 말하지 않고, 다만 심상(心象)과 관념(觀念)의 한 복합체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가까이 다가들어 이 시 가운데 쓰인 말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어 선택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58)</sup> 시에서 상징이나 인용, 비유도 중요하지만, 낱말의 음향인 ‘행간운’(internal rhyme)이 서정시의 시적 분위기를 빚어내는 결정적 요소임을 그는 여러 영시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이렇듯 시어, 리듬, 운율을 중시하는 이양하의 문학론은 「시와 가치」, 「랜더의 바스時代」, 「엘리엇의 시대배경」 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양하는 영미시론(문예론)이나 시 작품을 번역하고 소개할 때 그것이 한국문학의 자양분이 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말한, 흔치 않는 외국문학 전공자였다.<sup>59)</sup> 당시 이화여전 교수였던 친구 이희승은 “月波(김상용)도 專攻이 英文學이었는데, 李兄(이양하)이나 月波이 워어쓰워드(Wordsworth) 혹은 카알라일(Carlyle)이 되려고 英文學을 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 문학을 좀 짚짚하게 하여 보기 위한 영문학연구였다.”라고 말하였고,<sup>60)</sup> 제자 정종화도 스승 이양하가 한국인도 영문학의 단순한 소개자가 아니라, 영문학계에 오리지널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외국문학을 해서 결국은 한국문학을 재검토하고 질서화 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외국문학에서 한국문학으로 돌아오는 게 문학을 하는 바른 자세”임을 늘 강조했다고 술회한 데에서도<sup>61)</sup>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6) 위의 글, 73쪽.

57) 이양하, “Christina Rossetti”, 위의 책, 79쪽.

58) 이양하, “T. S. Eliot”, 위의 책, 83쪽.

59) 배수찬, 「이양하(李敷河)의 글쓰기 환경 연구-교육체험과 세계관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10호, 한국작문학회, 2010, 435~462쪽.

60) 이희승, 「이양하 형을 추모하며」, 『추념문집』, 191쪽.



이양하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은 동경대 재학시절 이광수의 시 2편과 주요한의 시 3편을 영역하여 영국잡지에 기고한 글 “Five Korean Poems”나, 외국시인과 한국시인의 유사작품을 비교 고찰한 「소월의 진달래와 ‘에이츠’의 꿈」과 「바다와 나비」, 또 산문작품을 비교 분석한 「서양의 춘향전 『루크리스의 겁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월의 진달래와 ‘에이츠’의 꿈」에서는 김소월의 시 〈진달래〉에서 시적 화자가 떠나는 님에게 자기 마음에 해당하는 진달래를 뿌려드리니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라면서 님이 떠나지 말길 바라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에이츠의 시 〈꿈〉에서 화자가 떠나는 당신의 발밑에 비단을 깔아주고 싶지만 가난하여 대신 내 꿈을 깔았으니 사뿐히 밟고 가시라고 말하고 있음에서 양자의 유사성을 찾고 있다.<sup>62)</sup> 또한 「바다와 나비」에서는 김기림의 이미지즘적 시 〈바다와 나비〉와 스펀더의 〈Then, from the shore, two zig-zag butterflies〉로 시작되는 상징적인 작품을 비교하면서, 나비가 바다를 청무밭으로 알고 내려간다는 이미지에서 양자의 유사성과 영향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sup>63)</sup> 이 글에서 이양하는 김기림이 스펀더의 시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편, 「서양의 춘향전 『루크리스의 겁탈』」에서는 열녀를 다룬 서양의 ‘루크렛치아’ 이야기가 서양의 춘향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작품화한 초서와 셰익스피어를 거론한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작품, 『루크리스의 겁탈』(*The Rape of Lucrece*, 1594)은 제작연대도 춘향전과 비슷하고 표현도 유사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한다.<sup>64)</sup> 하지만 한국과 서양의 작품 간 유사성을 탐색한 이런 이양하의 글들이 서양문학을 한국문학의 자양분으로 삼는 일과 무관한 것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연희전문 시절 이양하가 쓴 영문학 관련 글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것들이고 편수도 많지 않으며, 「시와 가치」나 「렌더의 바스시대」 등은 이미 출간

61) 정종화, 「그 말씀 어디서 다시 들으리」, 위의 책, 245쪽.

62) 이양하, 「소월의 진달래와 ‘에이츠’의 꿈」, 위의 책, 62~63쪽.

63) 이양하, 「바다와 나비」, 위의 책, 64~65쪽.

64) 이양하, 「서양의 춘향전 〈루크리스〉의 겁탈」, 위의 책, 59쪽.

한 일본어 책을 부분 번역한 것들이었다. 즉, 30~40대 초반 그는 영문학과 관련해서는 20대 유학시절에 이룬 성취들에 버금가는 성과물을 내지 못하였다. 거기엔 군국주의가 발호하던 시대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제말기, 그는 잠시 영문학 연구를 내려놓고 몸을 낮추어 교육에 전념하면서 한글 수필 창작에 매진한 것으로 보인다. 수필의 주요 작품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유년기의 슬픈 체험과 유학시절의 고독과 방황을 그린 자전적 수필들인 「신의(新衣)」, 「젊음은 이렇게 간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 「내가 만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송전의 추억」, 「경도 기행」 등이 그러하고, 「신록예찬」, 「프루스트의 산문」, 「페이터의 산문」 등,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수필들도 그러하다. 이들은 모두 그가 서올대로 자리를 옮긴 직후인 1947년에 을유문화사에서 발간한 첫 수필집 『이양하 수필집』에 수록되었다.<sup>65)</sup>

이 글에서는 그동안 논의가 별로 되지 않은 「프루스트의 산문」을 살피려 한다. 「프루스트의 산문」은 「페이터의 산문」과 함께 서양에세이를 일부 번역해서 삽입하면서 이양하의 상념이나 번역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인 글이다. 이런 방식은 월터 페이터가 『페이터의 산문』이나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에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방식을 이양하가 차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월터 페이터가 아우렐리우스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을 경계 없이 넘나들며 글을 썼듯이, 이양하도 번역과 창작의 경계가 불분명한 글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루스트의 산문」에서 이양하는 우선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의 작가 프루스트의 책 가운데 자신이 애독하던 산문집 『기쁨과 그날그날』 중 「바다」를 번역하여 제시한다. ‘프루스트의 마음’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프루스트의 ‘바다’는 아름답지만 불안하고 쓸쓸하다. 그러나 그 바다는 또한 “우리의 불안한 생활에 안면을 허락하고, 모든 것이 소멸되지 않을 것을 약

65) 이 책은 을유문화사 창설에 참여했던 조풍연의 권유로 발간되었는데, 종이가 없어 신문을 포함한 모든 간행물이 선화지(겉쪽겉쪽한 종이)를 사용하던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호화본이었다. 『시와 과학』의 조선어본도 조풍연의 권유로 을유문화사에서 내게 되었다. 조풍연, 앞의 글, 221쪽.

속해주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해가 지면 땅은 금방 어두워지지만, 바다는 언제까지든지 애연하여 햇볕의 ‘기억’을 지니고 있다. 또 바다가 만들어낸 우울의 낙조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을 황홀케 한다. 이 마력적인 바다는 음악과도 같은데, 음악은 말과 달리 인간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위안을 선사해 준다. 파리의 서재에 앉아 기억 속 바다를 그리는 프루스트의 이야기를 통해 이양하는 인생은 실제 사는 것보다 꿈을 꿀 때나 상상 혹은 기억 속의 것이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인식은 페이터가 진리를 ‘시적 질서’에서 찾는 것과 흡사하다. 일반적으로 수필은 일상적 체험을 바탕으로 삶의 소소한 지혜나 통찰을 이끌어내는 산문양식인데, 이양하는 「프루스트의 산문」이나 「나무」 등에서 일상적 경험을 꿈, 상상, 사유의 세계로 대체하고, 거기서 어떤 심미적인 전언, 혹은 시적 진실을 끌어내고 있다.

이양하의 「프루스트의 산문」에 삽입된 글에서 프루스트는 “인생을 살려 하지 말고 꿈꾸려 하라.” 꿈을 버리면 “먹을 풀을 위해 사는 소에 불과해진다”라고 말한다.<sup>66)</sup>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연상의 소녀를 사랑했다. 그가 드디어 그 연상의 소녀를 만나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된 날, 그는 결국 (바다에) 몸을 던졌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상 속 그녀와 실제의 그녀가 크게 달라 그가 크게 실망한 탓이다. 이 작품에서 프루스트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 소년과 같이 치둔(癡鈍) 가운데 몸을 던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이양하는 해설한다. 이렇듯 실제 현실 보다 상상, 기억, 꿈, 예술작품 속의 세계가 더 아름답고 가치롭다는 프루스트에 관한 이양하의 해설에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즉, 폐시미즘(pessimism)이 감지된다. ‘마음의 간헐’이란 개념으로 프루스트의 「진주」를 소개한 부분에서 이런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진주」는 사랑하는 여성과 만났을 때보다 그녀와 헤어져 돌아와 자신의 방에 혼자 누워 ‘로즈 시가렛’을 피워 물었을 때 나는 담배향기에서 그녀의 존재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그녀에 대한 애정과 행복감도 더 커진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양하는 「진주」에서의 ‘담배향기’는

66) 이양하, 「프루스트의 산문」, 『이양하 수필집』, 을유문화사, 1947, 206쪽.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스완」 편에 등장하는 ‘홍차에 찍어먹는 마들렌 과자’와 같다고 말한다. 프루스트는 평소엔 무의식 가운데 묻혀 있던 과거가 우연한 외부적 자극에 의해 의식으로 떠오르는 현상을 ‘마음의 간헐’이라 칭했다.<sup>67)</sup> 그런데 이런 ‘마음의 간헐’에 마음이 가 있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사람으로, 이는 그가 “어디선가/새 한 마리 울어/온 골짜기/더욱 고요하고~(중략)/외로운 그림자/새삼 외로워라”<sup>68)</sup> “사람이 가고 젊음이 다한 오늘/다방순례도 역겨워/내 차라리 한 마리 부엉이 되어 외롭고자 하노라”<sup>69)</sup> 라고 노래한 시에 투영된, 당시 자신의 상태를 지칭한다.

고독과 싸우던 30~40대 초반의 연희시절, 이양하는 영문학과 관련된 짧은 평문들에서 낭만적인 시를 번역하여 소개하거나, 시나 소설의 언어와 형식 문제에 주목하였고, 번역수필이랄 수 있는 「프루스트의 산문」에서는 리얼리티 중심의 산문적 세계보다 상상, 꿈, 기억 등을 중시하는 심미적이고 시적인 세계에 대한 지향성과 폐시미즘적인 사고에 공감하고 있다. 이는 그가 「페이터와 인본주의」에서 자신의 미적 지향이 페이터의 심미주의 입을 표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월터 페이터가 감각과 정서의 세련을 통해 지적 고양을 추구하였듯이, 이양하도 ‘시적 질서’로서 ‘미(美)’라는 진실을 형상화하는 데 관심이 많았고, 이런 그의 성향이 산문문학인 수필마저 ‘시적’으로 만들고 있음은 「프루스트의 산문」은 확인시켜 주고 있다.

#### 4. 40대 초중반~사망까지 서울대 재직시절: 영어교재와 영어사전 편찬 및 계몽적 수필 쓰기

해방 직후에 경성제대로 자리를 옮긴 이양하는 1946년 10월 서울대가 개교한 시점부터 1963년에 사망할 때까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희전문 시절과는 판이하게 다른 활동들을 보여 주었다. 국립대 교수로서 그

67) 위의 글, 207쪽.

68) 이양하, “promenade sentimentale”, 『마음과 풍경』, 민중서관, 1962, 49쪽.

69) 이양하, 「내 차라리 한 마리 부엉이가 되어 외롭고자 하노라」, 위의 책, 103쪽.

가 해방공간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주로 한 일은 중등학교 영어교과서와 영어문법서들, 영한사전과 한영사전 등의 사전류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에 그는 한국의 대표적 수필가로서 양주동, 이희승 등과 함께 국어 교과서 편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주로 중·고등학교 영어교재를 만들었다. 수필가로서는 이 시기에 대표작 「나무」를 썼고, 또 많은 계몽적인 수필들을 남겼다. 우선, 그가 만든 영어 교과서와 문법책들 가운데 필자가 현재까지 확인한 것들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책 이름	종류	대상	출판사	간행 년도	총 면수
1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 for senior middle schools	교과서	중	민중서관	1947	177
2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II	교과서	중	민중서관	1947	167
3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II	교과서	중	민중서관	1948	167
4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I	교과서	중	민중서관	1949	119
5	Yang-ha Lee	ENGLISH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교과서	중	민중서관	1949	85
6	Yang-ha Lee	A Concise English Grammar	문법서	중학	민중서관	1949	204
7	Yang-ha Lee AGNES V. BONER	ENGLISH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Book 1-3	교과서	고교생	민중서관	1949	85 ~88
8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V for middle schools	교과서	중	민중서관	1950	138
9	Yang-ha Lee	A CONCISE ENGLISH GRAMMAR	문법서	all	민중서관	1950	204
10	Yang-ha Lee AGNES V. BONER	ENGLISH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Book I -3	교과서	고교생	민중서관	1950	85 ~88
11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I for middle schools	교과서	중2	민중서관	1951	153
12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II for middle schools	교과서	중3	민중서관	1951	130

번호	저자	책 이름	종류	대상	출판사	간행 년도	총 면수
13	Yang-ha Lee AGNES V. BONER	ENGLISH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Book I	교과서	고교생	민중서관	1951	85
14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II for middle schools	교과서	중학생	민중서관	1951	166
15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 for high schools	교과서	고1	민중서관	1952	135
16	Yang-ha Lee AGNES V. BONER	English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1-3	교과서	중학	민중서관	1952	85 ~88
17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 FOR HIGH SCHOOL	교과서	고교생	민중서관	1953	143
18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 for middle schools	교과서	중1	민중서관	1953	157
19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 FOR HIGH SCHOOL	교과서	고교생	민중서관	1956	127
20	Yang-ha Lee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I for high schools	교과서	고2	민중서관	1956	145
21	Yang-ha Lee	for middle school LETS LEARN ENGLISH Book1	교과서	중학생	민중서관	1960	212
22	Yang-ha Lee	LETS LEARN ENGLISH Book 1	교과서	중학생	민중서관	1961	210
23	Yang-ha Lee	ENGLISH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1	교과서	중학	민중서관	1961	87
24	Yang-ha Lee	ENGLISH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I	교과서	고교생	민중서관	1962	94
25	Yang-ha Lee	ENGLISH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1	교과서	중학	민중서관	1963	94
26	Yang-ha Lee	LETS LEARN ENGLISH Book 2	교과서	중학생	민중서관	1963	238
27	Yang-ha Lee	LETS LEARN ENGLISH book2	교과서	중학생	민중서관	1963	214
28	Yang-ha Lee	for middle schools LETS LEARN ENGLISH BOOK 2	교과서	중학생	민중서관	1964	245
29	Yang-ha Lee	English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1-3	교과서	고교	민중서관	1964	95
30	Yang-ha Lee	LETS LEARN ENGLISH Book 3	교과서	중학생	민중서관	1965	235

이 교과서들은 세종시에 소재한 ‘교과서박물관’에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 필자도 거기서 이들을 확인했다. 이양하가 만든 교과서에 대한 연구나 소개는 아마도 이 글이 최초일 것이다. 그가 1940년대와 50년대 초중반에 만든 책들은 겉표지에 저자명 ‘Yang-ha Lee’ 아래 그가 서울대학교 교수임이 적시되어 있으며, 모두 민중서관에서 출간되었음이 이채롭다. 그가 1940년대 후반에 최초로 만든 영어 교과서인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시리즈는 전체 6권 구성인데, 필자가 확인한 것은 I-IV권이다. 당시에는 중학교가 6년제여서,<sup>70)</sup> 이 시리즈는 학년별로 수준을 감안해 편성된 독본 형식의 영어교과서들이었다. 이 시리즈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과 같은 문학작품의 일부나, 보이 스카웃(Boy Scout)과 소나타(Sonata)에 대한 소개문을 비롯한 다채로운 독해자료들을 묶은 것으로, 이양하가 직접 집필한 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951년 판본인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II for middle school*(민중서관, 1951)의 경우는 장(Chapter)별로 본문을 먼저 제시한 후 문법(Grammar)과 구술연습(Oral Exercises)이 뒤따르고 있고, 페이지마다 하단에 그 페이지에 나온 주요 단어와 숙어가 제시되어 있는 등, 좀더 영어 교재다운 편성을 보인다. 본문에는 디킨즈(Charles Dickens)의 글과 바이런(Lord Byron)의 시작품,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의 생애와 시에 관한 소개문,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에 대한 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1956년 판본에는 윌리엄 텔(William Tell), 갈릴레오(Galileo), 마르코 폴로(Marco Polo) 등의 이야기와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에 관한 소개문도 실려 있다. 즉,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중반 이양하가 만든 중등학교 영어교재들은 영미의 문학과 문화, 역사와 생활상을 다룬 독해자료 중심의 구성에, 교수자 중심의 편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70) 한국의 중등학교 편제는 1946년부터 중학 6년제였다가 1950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제로 운영되었고, 6.25 중이던 1951년부터 현재와 같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제로 개편되었다. 김효일, 「기본학제 개편에 의한 각급 학교 교육시설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I)」, 『교육시설』 1권 1호, 한국교육시설학회, 1994.6, 53~54쪽.

해방 직후부터 6.25 동란기까지 한국의 영어교육은 일제강점기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교사중심, 문자언어중심, 독해위주에 머물렀다. 반면, 전쟁의 참화가 좀 가신 195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학생중심, 의사소통중심, 언어기능중심으로 발전해 갔다. 이런 변화의 계기는 1954~1955년 무렵에 이루어진 1차 교육과정이었다.<sup>71)</sup> 문법 위주의 영어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의 틀을 잡아간 데에는 당시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외국어 교수법 이론도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sup>72)</sup> 하지만 미군정기 이후 한국의 영어교육이 미국식 영어 중심이었던 것은<sup>73)</sup>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양하가 1959년에 만든 *ENGLISH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시리즈는 제1차 교육과정 개편의 결과물로, 저자 서문도 있고, 앞부분에 발음기호들과 그것을 발음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찍은 사진도 10여 페이지나 제시되어 있으며, 본문에도 그림이 많이 들어 있는 등, 구성과 체계에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학습서다운 편성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장별로 예시문형을 먼저 제시한 후, 그것을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다른 단어를 삽입하여 문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반복훈련(Drill)의 순으로 구성이 체계화되어 있고, 장(Chapter)마다 본문 구성은 콘텐츠(Contents), 부록(Appendices), 단어(Vocabulary), 속어와 문장(Idioms & Phrases)의 순으로 되어 있다. 1960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이양하의 *LET'S LEARN ENGLISH* 시리즈 중 필자가 확인한 1963년판의 경우, 제24과(Lesson 24)에는 영작문 연습문제가 편성되어 있기도 하였다. 한글문장을 먼저 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영작하게 한 것인데, 주어진 한글문장들에서 당시 이양하의 관심사가 고스란히 배어났다. 예를 들면, “1. 나라를 잘 되게 하려면 국민 하나하나이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글로 연설로 대중에게 호소하였다. 2. 젊음이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다. 젊었을 때 한껏 즐기고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잘 사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등의 문장들이 그러하다.<sup>74)</sup>

71) 황영순, 「한국에서의 미국영어 교육의 변천과정 조망」, 『미국사연구』 40호, 한국미국사학회, 2014.11, 219쪽.

72) 위의 논문, 230쪽.

73) 위의 논문, 201쪽.



흥미로운 것은 이양하가 번역한 『시와 과학』의 저자 I.A.리처즈도 외국인  
인을 위한 영어교재를 만들어 세계적인 판매부수를 올린 영어학자였다는  
점이다. 리처즈는 1929~1930년에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 방문교수로 가서  
중국 학생들에게 기초 영어와 시를 가르쳤고, 1936~1938년까지 3년간은  
중국에 소재한 한 연구소의 소장으로 중국에 체류하였다. 그 경험을 기초  
로 그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재 *Basic English*를 출간했는데, 이 책은 만  
국공통어인 그림을 심분 활용하여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도 짧은  
시간에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이 책은  
1946년 7월과 11월에 『영어의 첫걸음*Basic English(上)*』, 『영어의 첫걸음  
*Basic English(下)*』이란 제명으로 을유문화사에서 출간되었다. 또 1955년  
에는 170여 페이지 분량으로 개정판이 나왔고, 이후로도 꾸준히 발간되어  
현재까지도 그림 하나 바뀌지 않고 제목만 달리하여 간행되어 시판되고 있  
다.<sup>75)</sup> 리처즈의 책을 번역했고 미국에 체류할 때 하버드대로 가서 직접 리  
처즈를 만나기도 했던 이양하<sup>76)</sup>가 영어교재를 만들면서 리처즈의 *Basic  
English*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개연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어쨌든 이양하  
가 만들거나 편성한 영어 교재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는 그림도 많아지고  
외국인을 위한 형식과 구성으로 점차 발전해 간다.

서울대 재직시절, 이양하가 이룬 두 번째 주요 업적은 영어사전류를 만든  
것이었다. 해방 직후 그는 먼저 영어→한국어 구조의 사전 편찬에 나섰다.  
그는 동경제대 영문학과 후배 권중휘(權重輝)와 함께 일본 이치가와상키(市  
河三喜)에서 출간된 『포켓용 리틀 디셔너리』를 번역하여 『스쿨영한사전  
(*School English-Korean Dictionary*)』(민중서관, 1946)을 출판했다. 하지만  
이는 비슷한 일한사전의 단순 번역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전의 발간을 위

74) 이양하, *LET'S LEARN ENGLISH book2*, 민중서관, 1963, 213쪽.

75) 현재까지 시판 중인 리처즈의 영어 교재 중 필자가 확인한 것은 2008년 웅진씽크빅에서  
발간한 *English Restart basic*과 *English Restart advanced 1*, *English Restart advanced 2*  
등이다. 이들은 각각 66쇄, 42쇄로 내용은 초판본과 똑 같다. 이 책들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어책”, “한 달만 지나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술술”이란 평을 받으며 지금껏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76) 장성언, 「미국 시절의 이 선생」, 『추념문집』, 232쪽.

해 1945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예일대에서 작업을 하였다.<sup>77)</sup> 외국어에 대응하는 적절한 한국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 그는 850페이지에 달하는 이 영한사전에 2만 표제어를 담았다. 또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는 재차 권중휘와 함께 『포켓영한사전(*Pocket English-Korean Dictionary*)』(민중서관)을 펴냈다. 이 사전에는 7만 700개의 어휘가 1559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이 사전은 표제어에 대해 발음, 어의, 형태 변화뿐 아니라, 현대 사전에서의 ‘일러두기’와 유사한 ‘범례’까지 제시하고 있어 매우 현대적인 면모의 사전으로, 중요한 표제어 1만 개에는 \*표시를 하고, 더 기본이 되는 어휘 1700개에는 \*\*표시를 해서 학습자가 그 단어의 중요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sup>78)</sup> 이 사전의 초판본 「머리말」에서 이양하는 이 사전의 집필에 여러 영일사전 및 영영사전 등을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사전은 1966년까지 6년 간 무려 33판을 낼 정도로 잘 팔려 1950~60년대를 대표하는 영한사전이라 할 수 있다.<sup>79)</sup>

영한사전은 한국인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사전이다. 리처드의 관점에서 이런 사전을 만드는 일은, 영문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양하는 자신의 예술 창작 충동을 조절하고 최대 소수의 희생으로 최대 다수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에 나선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영한사전을 편찬할 때 그는 권중휘와 함께 작업을 위해 동래온천장에 몇 달간 머물렀는데, 어찌나 작업량이 많았던지 정담을 나눌 시간조차 없이 거의 24시간 내내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권중휘는 거기서 이양하는의 성실성과 부지런함, 끈기와 의지에 놀랐다고 후술하고 있다.<sup>80)</sup>

일제 말기에 이양하는 또한 “節操를 무엇보다 아끼고 존중”하여 끝내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그의 시 「돌아보는 고국산천」을 보면, 그가 「事大」에 대한 남다른 자의식을 지녔음이 알 수 있다. 또 시 「얼룩소」에는 일본에서 느낀 고국에 대한 향수가 그려져 있고, 또 「금강원」과 「점경」 등에는 향토

77) 이희승, 「이양하 님을 추모하며」, 『추념문집』, 192쪽.

78) 송은하, 「영한사전의 역사와 시대별 영한사전의 특징」, 『한국사전학회』, 2013.11, 146쪽.

79) 기자, 「생명이 긴 숲은 베스트셀러」, 『경향신문』, 1962년 10월 24일자, 제3면.

80) 권중휘, 앞의 글, 215쪽.

에서의 소박한 추억들을 회상하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미국에서의 심경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sup>81)</sup> 일제 말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출정을 권면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았다.<sup>82)</sup> 또 해방 전후기에 그와 교분을 나눈 동료들은 이 무렵에 그가 학창시절과는 달리 “세상 돌아가는 형편, 국가·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고 증언한다.<sup>83)</sup> 또 권중휘는 “東西思潮의 交流機에 태어나서 보통사람이 제 精神을 차리지 못하고 自己 思想의 整頓과 感性의 調節에 거의 失敗를 보는 現下, 李君(이양하)처럼 自己를 지키고 過去를 살리고 새 것을 잘 消化하여 人格完成에 成功한 사람이 韓國에는 매우 드물다. 君은 不幸한 時代에도 불구하고 가장 덜 不幸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sup>84)</sup>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앞으로 긴히 사용될 한영사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고, 또 그것을 만드는 지난한 작업을 마다하지 않은 그는 어쩌면 그의 방식으로 ‘덜 불행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양하가 한국어→영어 구조의, 즉 영어권 나라의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사전인 한영사전 편찬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에 도미하여 하버드대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은 1953년 미국 학술원 초청으로 예일대에 가게 되었을 때, 미국 학회협의회의 동양어 연구계획의 지원을 받아, 언어학부의 마틴 교수를 만나 한미사전 편찬을 논의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물은 그가 사망한 후인 1968년에야 비로소 『한미대사전(韓美大辭典)』(민중서관)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그는 이 사전의 교정을 보던 중인 1963년에 사망했고, 마무리 작업에서 한국 연구자가 해야 하는 부분은 나중에 가세한 장성언이 맡았다. 구상부터 출간까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이 일은 그야말로 지난한 작업이었다. 한미사전은 영어권 화자, 특히 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으로, 미군정기를 거쳤고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이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된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이양하가 누구보다 먼저 그 필요성

81) 류령, 앞의 글, 225쪽.

82) 장덕순, 앞의 글, 230쪽.

83) 권중휘, 「故 이양하君的 일면」, 『추념문집』, 215쪽.

84) 위의 글, 217쪽.

을 깨달아 편찬에 착수하여 결실을 맺은 사전이었다.

이 사전은 원래 미국의 예일 출판사와 한국의 민중서관에서 동시 출간될 예정이었다. 예상 기한을 훨씬 넘긴 이 사업의 첫 결실은 1968년에 발간된 한국어판으로, Samuel E. Martin, Yang Ha Lee, Sung-Un Chang이 공저자로 표기된 『한미대사전 *New Korean-English Dictionary*』이었다. 1902페이지에 달하는 이 사전의 집필과정이 얼마나 지난했는지는 머리말 「국내판을 내면서」에 잘 나타나 있다. 한글문법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전 필자가 직접 발음, 표기 등의 문법적 기준들을 마련해야 했고,<sup>85)</sup> 사전의 표기들은 규범적인 의미도 갖기에,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거듭 점검하고 교정하고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이 많은 작업을 미국인 학자 1명(S.E.마틴)과 한국인 학자 단 2명(이양하와 장성언)이 해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전학 분야에서는 지금도 한국인이 직접 영어사전을 개발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한다.<sup>86)</sup> 컴퓨터가 없던 시절, 이렇듯 방대한 분량의 대사전을 직접 만드는 일은 마치 수도승의 일과 같이, 견인주의적인 노동이었을 것이다. 즉, 이양하가 「리처즈의 문예이론」에서 설명한, 충동의 조절과 윤리적 가치의 실현에 해당하는 일에 가깝고, 「페이터와 인본주의」에서 말한, 제한과 억압에 의해 비로소 보다 경건하고 보다 가치 있는 생활이 얻어진다. 페이터의 「고행」이나 베비트의 「내적 억제」의 실천에 연결될 만한 일일 것이다. 말년을 함께 한 장영숙은 『신록예찬』(범우사, 1972)의 「머리말」에서 이양하는 한마디로 ‘성실된 인간미’의 사람이었다고 추억하고 있다. 고보 때부터 이양하의 별명이 ‘근면가(勤勉家)’였다는 것이나,<sup>87)</sup> 그의 묘비명에 새겨진 “성실 익기 힘들을 보고 가는 자”라는 말<sup>88)</sup>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는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며, 지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직업적 영역에서 이런 값진 성취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성취들은 곁필의 유년기와 고독한 청년기를 마감하고 50대 이후 그가 자기 삶의

85) Samuel E. Martin · 이양하 · 장성언, 「국내판을 내면서」, 『한미대사전 *New Korean-English Dictionary*』, 민중서관, 1968, 1~2쪽.

86) 정영국, 「영어 사전학 강의」, 『한국사전학』 10호, 한국사전학회, 2007.10, 47쪽.

87) 최정수, 앞의 글, 212쪽.

88) 장영숙, 앞의 글, 3~5쪽.

중심을 잡아갈 수 있게 만든 현실적인 힘이 되었을 것이다.

연희전문에서 함께 일했던 고흥곤은 회고담에서 이양하는 “그의 스승인 市河三喜(산키 이치카와)氏가 英和辭典(English-Japanese Dictionary)으로 돈을 벌어서 鎌倉(가마쿠라)에 별장(別莊)을 사가지고 사는 것을 매우 부러워했다.”면서 그래서인지 그는 해방 이후 사전을 만들었고, 또 우이동에 별장을 샀다고 진술하였다.<sup>89)</sup> 별장을 갖고 싶다는 현실적인 욕망은 사전 편찬의 한 계기였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는 이 일에 착수하자마자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매순간 깨달았다고 한다. 특히 영한사전과 달리 한영사전을 만드는 일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면 끝까지 마무리하기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미국에 체류하며 『한미사전』의 편찬에 동참한 장성언은 “사전 일은 지루했다.”라고 말하고 있고,<sup>90)</sup> 1954년 미국에서 이양하가 한국의 최정수에게 보낸 서간문에서 그는 “사전일은……예상보다 귀찮고 힘든 것”이라며, 예상의 2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며 이 일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sup>91)</sup>

그는 미국에서 사전편찬과 연구활동을 이어가던 중 장영숙을 만나 사랑을 나누었고, 1957년에 미국에서 결혼을 하였다. 아무나 외국에 나갈 수 없었던 시절, 그는 미국과 한국을 수시로 오가며 연구에 전념했고, 그 결과 1954년에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1957년에 서울대에 복귀한 후 1958년에 서울대 인문대 학장서리가 되었다. 그는 연희전문 11년, 서울대 18년을 합쳐 30년 가까이 영문과 교수로 재임했다.<sup>92)</sup> 그 중 1951년부터 1957년경까지는 한국보다 미국에 체류한 시간이 더 많았다.<sup>93)</sup> 그 이유는 『한미대사전』 편찬 때문이었다. 그동안에도 그는 수필을 꾸준히 썼고, 번역도 하였으며, 영문학과 관련된 연구계획도 많이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가 사망한 직후인 1964년에는 그가 번역한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집 『초원의 빛』(교양문화사)이 출간되었고, 장영숙은 사망 직전에 그가 『시론』과

89) 고흥곤, 앞의 글, 220쪽.

90) 장성언, 「미국 시절의 이 선생」, 『추념문집』, 235쪽.

91) 이양하, 「최군에게」, 1954, 『추념문집』, 179쪽.

92) 정진숙, 앞의 책, 74쪽.

93) 정병조 편, 『추념문집』의 5부의 글들 참조.

『T.S.엘리엇』에 관한 연구서를 기획하고 있었다고 밝히고도 있다.<sup>94)</sup> 미국에 체류하던 1962년에 정중화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Eliot는 지난 방학에 쓰기 시작하였으나 학교가 시작된 이래 중단되고 있소. 여름 방학에나 계속할 수 있을는지.”라고 적고 있다.<sup>95)</sup> 즉, 그는 죽을 때까지 영문학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고, 계획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김우중은 일제 말 암흑기의 문인유형을 항일문학자, 친일문학자, 순수문학자로 삼분하면서 이양하를 김진섭, 김동석, 이태준과 함께 “사상성·사회성·목적성을 배제함으로써 외풍 없는 안전지대로 피신한” 순수문학가에 넣고, 그의 수필들을 미셀러니류로 분류했다.<sup>96)</sup> 이양하가 문학을 이념의 도구로 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문학관의 소유자였음은 그의 글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선택이 시대의 풍광과 정치적 외풍을 피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고 볼 근거는 딱히 발견되지 않는다. 사전 집필을 함께 한 권중휘는 그가 사망한 직후에 발표한 「추도사」에서 이양하를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東西文化의 장점을 알맞게 골라잡은 드문 교양인”이었다고 평가하였는데,<sup>97)</sup> 이양하는 외국문학을 전공했지만 영미문학이 한국문학의 좋은 자양분으로 흡수되어야 함을 또렷이 인식하고 있었고, 이념의 문제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어 전문직업인으로서 충직하고자 한 학자이자 수필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교적인 한국사회는 문사(文士)적 전통 때문인지, ‘지식인’ 하면 역사적 사명감을 떠올리고, 특히 이념의 격전장이었던 근대 이후에는 ‘이데올로그’를 쉽게 연상해 왔다. 하지만 이양하는 성실한 전문직업인인 식자층이 존재 가능성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경우라 할 수 있다.

서울대 재직시절에도 그는 수필쓰기에 게으르지 않았는데, 이는 두 번째 수필집 『나무』(1964, 민중서관)의 탄생을 낳았다. 여기엔 「어머니의 기억」

94) 장영숙, 앞의 글, 3~5쪽.

95) 이양하, 「정군에게」, 1962, 『추념문집』, 182쪽.

96) 김우중, 「수필계의 선구자, 이양하」, 『이양하 수필선:신록예찬』의 해설, 을유문화사, 2005, 8쪽.

97) 권중휘, 「추도사」, 『추념문집』, 189쪽.

등의 자전적 수필과, 「서구기행1-3」이나 「돌과 영국 국민성」, 「모든 것은 가난이 설명한다」 등의 선진문물을 둘러본 후 쓴 기행산문이나 한국과 서양의 문화를 비교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후자에는 서양의 발전된 문명과 문화에 대한 선망과 동경의 시선이 다소 묻어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도 더러 감지된다. 일례로, 「모든 것은 가난이 설명한다」의 경우, 훈민정음이나 거북선, 목판인쇄술이나 금속활자 등의 한국문화(재)에 대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모든 약점과 악덕의 문제를 '가난'이란 원인 하나로 단순화시킨 대목도 발견된다.<sup>98)</sup> 또한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은 건너뛴 채, 현상적 현실만으로 선진 美英과 한국의 문명적 격차를 비교한 측면도 목도된다. 이런 대목들은 그가 영문학을 보편의 지위에, 자문화를 볼품없는 특수성의 위치로 격하시켰다는 비판을 피해하기 어렵게도 만든다.

이 밖에도 『나무』에는 「무궁화」를 비롯한 「나라를 구하는 길」, 「다시 나라를 구하는 길」, 「주택개선안」, 「분산된 각 단대는 한 캠퍼스로 모여야 된다」 등의 계몽적 산문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또 베이컨의 수필집에 대한 감상과 소개를 겸한 「베이컨 수필집」과 후기를 대표하는 명상수필 「나무」도 실려 있다. 「베이컨 수필집」에서 그는 서구에 버지니아 울프나 쇼펜하우어, 몽테뉴 등의 훌륭한 에세이스트들이 있지만, 특별히 베이컨의 에세이가 우수한 것은 슬기와 지혜에 찬 베이컨의 관찰력과 그것을 짧은 문장에 응축해 담은 촌철살인적인 표현력에 있음을 강조한다. 간결한 잠언 형태의 문장들은 한번 읽어도 쉬이 잊히지 않는데, 거기에 베이컨 에세이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sup>99)</sup>

이양하는 시인이나 소설가의 문학세계를 평가할 때 어휘력이나 표현력의 문제, 즉, 언어의 차원을 매우 중시했다. 이런 기준이 그의 대표작 「나무」의 문장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나무」에는 심미적 인식과 시적 지향성을 중시한 페이터나 리처즈의 영향이 짙게 나타난다. 「나무」에서 그는 '나무는 어퍼하다'라는 단순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구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98) 이양하, 「모든 것은 가난이 설명한다」, 『나무』, 민중서관, 1964, 94~103쪽.

99) 이양하, 「베이컨의 수필집」, 위의 책, 148~151쪽.

것에 만족하는 ‘안분지족(安分知足)’과 혹독한 현실을 수용하고 인내하는 ‘견인주의(堅忍主義)’를 이상적 인간의 미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첫 번째 수필집의 대표작 「신록예찬」의 ‘자연’과 ‘고독’에 연결하면, 그는 운명과 직무에서는 「나무」의 ‘안분지족’과 ‘견인주의’를, 개인적인 휴식의 시간에는 「신록예찬」의 ‘고독’, 즉 무엇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이자 심미적이고 고요한 침잠으로서의 ‘고독’을 갈망하고 외쳤다고 볼 수 있다. 1945~1963년의 혼란기에 수많은 교과서를 만들고 사전을 편찬하며 국가에 기여한 학자로서 그가 여기(餘技)로 쓴 수필들에서 제안한 이런 가치들은, 페이터나 리처즈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윤리의식에 해당할 것이다. 이양하가 외친 가치들은 지식인이나 이데올로그(ideologues)의 차원이 아닌, 전문직업인으로서 그가 요청한 일종의 새로운 ‘모럴’이었던 것이다.

## 5. 달는 말 : 이양하의 세계, 혹은 학문(Sciences)과 창작(Poetries)의 이중주

이양하의 수필세계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그가 30년간 봉직한 영문학과 교수로서의 업적과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 글을 추동하였다. 이 글은, 오랫동안 교과서에 수록되어온 그의 「신록예찬」과 「나무」만을 반복적으로 논의해온 저간의 연구관행을 극복하고 온전한 이양하 론(論) 구성을 위한 밑그림 작업으로 이양하의 세계를 20대의 유학시절, 30~40대 초반 연희전문 재직기, 40대 초·중반부터 사망할 때까지 서울대 재직기로 나누어 삶의 변화와 중심 업적들을 일별해 본 것이다.

일본 유학시절 이양하는 월터 페이터와 리처즈의 문예론을 소개하고 번역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 결과들은 영문학자로서 그의 이르지만 뚜렷한 성취가 되었고, 평생토록 문예관과 인생관의 초석이 되었다. 월터 페이터를 통해서 심미적 인식과 시적 질서에의 지향을 품게 되었고 모든 것의 바탕에 가치론적 판단이 개입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는 페이터의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에서 마리우스의 변화와 성장에 공감하였고, 『페



이티의 산문』에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소화하여 번역과 창작의 경계를 넘나드는 페이지의 글쓰기 방식과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프루스트의 『기쁨과 그날그날』에서는 현실 보다 꿈, 상상, 기억, 예술에 표현된 세계의 가치를 증시하는 심미적 인식에 매료되었다. 리처즈의 『시와 과학』에서는 시(문학)에서 언어가 갖는 중요성을 깨달았고, ‘의사 진술’인 시어와 과학의 언어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였으며, 시와 시인의 역할에 대한 리처즈의 사유를 적극 수용하여 문학이 인간을 고양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가치론적 문예관을 정립할 수 있었다.

1934년 연희전문에 취직되어 귀국한 후 1945년까지 약 11년간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필을 썼고 영문학과 관련된 평론들을 발표하였다. 일제말기였고 그의 나이 31~42세 무렵으로, 당시 그는 일본 유학시절에도 계급이념이나 저항민족주의에 기울지 않았듯이 일제의 폭압이 극에 달했던 암흑기에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에게 천황의 전쟁에 참전하라 독려하지도 않았다. 즉, 최대한 몸을 낮추고 직분에만 충실했다. 30대와 40대 초반으로 청청했던 그는 당시 남의 집에 기식하며 홀로 지냈는데, 개인적으로는 고독했지만, 교정에서는 낭만적인 스승으로 통했다. 이 무렵에 그는 많은 수필들을 썼고, 이는 『이양하 수필집』(1947)에 묶였다. 거기엔 유년기의 결핌을 그린 자전적 수필들과 외국문학 전공자가 느낀 문화적 격차에 대한 글들, 고독하면서도 낭만적이었던 유학시절에 느낀 고국에 대한 향수를 서술한 작품들이 실려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대표하는 수필 「신록예찬」에서는 사람이나 현실 보다 자연을 더 긍정하고 있고, 타자나 무엇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을 자유의 다른 이름인 ‘고독’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어, 당시에 그가 얼마나 고독했고 또 염세적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연희전문에 재직 중이던 1937년에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랜더의 평전』을 일본에서 출간하였지만, 이는 일본인들도 거의 모르는 사실이며서 영향력 있는 성과로 보긴 어렵다. 이 밖에도 그는 이 무렵에 제임스 조이스, 엘리엇, 워즈워드 등에 대한 소개문을 쓰기도 했으나, 이들은 단편적인 글들이다. 즉, 일제 말기에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수필창작에 매달려, 영문학과 관련해서는 유학시절에 버금가는 성과를 내지는 못 하였다.

서울대 재직시절 그는 영어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 중학교가 6년제이던 해방기에 국립대 교수로서 영어 교재와 문법책들을 만들기 시작한 그는 사망 때까지 수많은 영어 교과서와 문법서를 편찬했다. 또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인을 위해 영한사전을 편찬했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무렵부터 한영사전의 필요성에 눈을 떠, 수차례 미국을 오가며 미국인 교수와 협력하여 한영사전도 편찬하였다. 영한사전은 영일사전이나 영영사전 등의 참고 자료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렸지만, 한영사전을 만드는 일은 무척 지난했다. 컴퓨터도 없고, 문법체계도 잘 잡혀 있지 않던 당시에 그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근 20년간 공을 들여 『한미대사전』(1968)을 완성하였다. 이 무렵에 쓴 수필들은 두 번째 수필집 『나무』에 묶였는데, 「무궁화」나 「나라를 구하는 길」처럼, 애국적이고 계몽적인 내용의 것들이 많다.

「나무」는 『나무』에 수록된 작품들 중 예외적으로 명상적인 수필인데, 여기엔 월터 페이터와 리처즈에게서 영향을 받은 그의 심미적 세계와 윤리적 삶에 대한 '동시 추구'가 잘 드러나 있다. 이양하의 삶은, 그가 번역했던 리처즈의 책 제목처럼, science인 학문과 poetry인 시적 추구, 혹은 창작의 이중주였다고 할 수 있다. 본업인 학자로서 전공과 관련된 영문학 논문이나 평론 쓰기, 번역작업, 영어 교과서와 문법책, 사전의 집필이나 편찬 등이 science의 세계였다면, 그에게 여기(餘技)였을 수 있는 수필쓰기나 시창작은 심미적인 세계나 시적 질서를 담아내는, 일종의 poetry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직무영역에서 직분에 만족하며 견인주의적 성실성을 다한 후, 자연 속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자유로서 고독에 침잠하기를 원했다. 이런 바람은 poetry의 극점인 「신록예찬」과 「나무」에 잘 나타나 있다.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기, 견인주의적으로 성실하기, 그리고 난 이후에 심미적이고 시적인 세계인 자신만의 고독에 침잠하기는, 지식인의 차원이 아닌 전문인의 자리에서 그가 삶을 통해 체득한 가치이자 일종의 모럴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양하의 세계는 '지식인' 하면 민족에 대한 사명감과 역사적 부채의식을 떠올리는 유교적 전통의 한국사회에 새로운 전문 식자층의 탄생을 예고하는, 하나의 문화적 징후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이양하, 「페이타와 인본주의」, 『영문학연구』 13권 2호, 1933.4.  
\_\_\_\_\_, 「외국문학전공의 변(10)-페이타의 문예부흥」, 『동아일보』, 1939.11.18.  
\_\_\_\_\_, 「제임즈 조이스」, 『문장』 3권3집, 1941.3.  
\_\_\_\_\_, 『스쿨영한사전 *School English-Korean Dictionary*』, 민중서관, 1946.  
\_\_\_\_\_, 『이양하 수필집』, 을유문화사, 1947.  
\_\_\_\_\_, 『마음과 풍경』, 민중서관, 1962.  
\_\_\_\_\_, 『나무』, 민중서관, 1964.  
\_\_\_\_\_, 『신록예찬』, 범우사, 1976.  
\_\_\_\_\_, 『이양하 미수록 수필선』, 중앙신서, 1978.  
\_\_\_\_\_, 『이양하 수필선』, 을유문화사, 1994.  
\_\_\_\_\_, 김윤식 역 「이양하의 페이타와 인본주의」, 『현대문학』 28권 1호, 1982.1.  
이양하 · 권중휘, 『포켓영한사전 *Pocket English Korean Dictionary*』, 민중서관, 1954.  
정병조 편, 『이양하 교수 추념문집』, 민중서관, 1964.  
Samuel E. Martin·이양하·장성언, 『한미대사전』, 민중서관, 1968.

### 2. 논저

- 기자, 「생명이 긴 숨은 베스트셀러」, 『경향신문』, 1962.10.24.  
김우창, 「이양하의 수필세계」, 『수필공원』, 한국수필문학진흥회, 1984.  
김윤식, 「고독과 예고이즘」,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_\_\_\_\_, 「이양하 론」, 『(속)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81.  
\_\_\_\_\_,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I』, 일지사, 1984.  
\_\_\_\_\_, 「이양하의 외로움과 예고이즘」, 『작은 생각의 집짓기』, 나남, 1985.  
\_\_\_\_\_, 「문학사의 라이벌(5)-이양하와 김기림: 제국대학 영문학의 직계적 상상력과 방계적 상상력」, 『문학의 문학』 제5호, 2008년 가을호, 동화출판사, 2008.9.5.  
김진희, 일본 『영문학연구』에 실린 이양하의 첫 비평: 李敷河, 「批評紹介: 工藤

- 好美譯, 『ウォオルター・ペイター短篇集』, 『英文學研究』 제11권 2호, 1931.4., 『계간 서정시학』 27권 3호, 서정시학, 2017.8.
- 김효일, 「기본학제 개편에 의한 각급 학교 교육시설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I)」, 『교육시설』 1권 1호, 한국교육시설학회, 1994.6.
- 배수찬, 「이양하(李敷河)의 글쓰기 환경 연구-교육체험과 세계관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10호, 한국작문학회, 2010.
- 송은하, 「영한사전의 역사와 시대별 영한사전의 특징」, 『한국사전학』 22호, 한국사전학회, 2013.11.
- 이미순, 「이양하의 리처즈 시론 수용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호, 한국현대문학회, 1993.2.
- 임중빈, 「이양하 론」, 『신록예찬』, 범우사, 1976.
- 정부래, 「이양하 수필 연구」, 『청어람문학』 4호, 청람어문교육학회, 1991.
- 정영국, 「영어사전학 강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사전학』 10호, 한국사전학회, 2007.10.
- 정진숙, 『을유문화사 50년사』, 을유문화사, 1997.
- 황영순, 「한국에서의 미국영어 교육의 변천과정 조망」, 『미국사연구』 40호, 한국미국사학회, 2014.11.
- I. A. Richards, *Poetries and Sciences* 이국자 역, 『시와 과학』, 이삭, 1983.
- Marcus Aurelius Antoninus, *The Meditations of Marcus Aurelius Antoninus*, 노혜숙 역, 『새로 읽는 아우렐리우스 명상록-황제의 철학』, 세종서적, 2004.
- W. H. Pater, *The Essays of Pater*, 이성호 역, 『페이터의 산문』, 범우사, 1982.

<Abstract>

## An Essay on Lee Yang-ha's Life & Achievements

Kim, Mee-Yo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stablish groundwork for a study of Lee Yang-ha's life and work. So far discussions about Lee Yang-ha's essay have focused on some of his masterpiece essays such as "Tree," and "The Adoration of Early Spring" excluding his articles on English literature, compilations of English textbook for middle schools & high schools, English-Korean Dictionaries, Korean- English Dictionary, and unknown essays.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do research on those are influenced by his life & foreign literature.

In his twenties, while studying abroad in Japan as a student, Lee translated *Poetries & Sciences* written by I. A. Richards into Japanese and wrote some articles which introduced Walter H. Pater's novel, *Marius the Epicurean* & Essays. In those times, he realized how important appreciation of the beauties, poetical order as the truth, and morality as norm of life were. From the thirties to early forties, Lee served as professor in Yonhee College. In those times he wrote some essays and some short reviews on Wordsworth, T. S. Eliot, and James Joyce to introduce English literature to Korean people. His essays focused on loneliness and sentiments were published in *Lee Yang-ha's Essays* (1947). From the middle of forties till death, he served as professo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made a number of English textbooks for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and he also had compiled some English-Korean Dictionaries and a Korean-English Dictionary. Those were so difficult tasks without computers and established the grammar system for Korean in that time. In those days, he wrote some essays on enlightenment for Korean people. "Tree," his most famous essay was the only exception. In

that masterpiece, he had presented us satisfactory & perseverance(安分自足) as a value or morality.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Lee Yang-ha's Life was be similar to a duet of sciences that he had achieved as a scholar or a professor and poetries that he had achieved as a poet or essayist, as like as he had translated Poetries & Sciences written by I. A. Richards. Lee insisted on the new morality that someone did his best in job area first, he should be set free to enjoy his solitary second. Lee Yang-ha's world means the new professional person makes his appearance in Korean society not as an intellectual or an ideologue.

\* Key Words: Lee Yang-ha, Essay, Walter Pater, I. A. Richards, Morality

· 논문투고일: 2020년 1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3일 · 게재결정일: 2020년 2월 18일
---